

北韓의 國語學 體系 概觀*

韓 東 完

- I. 서론
- II. 북한 국어학의 이론적 배경 및 전개 과정
- III. 북한의 국어학 체계
- I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북한의 국어학 체계를 개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당해 연도에서는 북한의 순수국어학의 체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며, 기계번역학, 계산기언어학 등 응용언어학에 대한 고찰은 '북한 국어학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라는 다음 연도의 과제에 걸맞으므로 미뤄둔다. 또한 국어사, 계통론, 방언론 등과 같은 분야 또한 다음 연도의 과제로 설정해 놓았는데, 이 역시 고구려어 계통설을 강조한다든지 문화어 제정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완성되었음.

이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북한 국어학의 이론적 배경 및 전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제3장에서 북한 국어학 체계의 개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총론에서 북한 국어학 체계의 특성을 언어 층위(level)에 따른 언어학의 한 하위 분야인 의미론이 그 체계에서 빠져 있는 점, 그리고 북한 국어학 이론의 전개 과정과는 관계없이 일관되게 규범적인 성격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다음, 절을 달리 하여 북한 국어학의 하위 체계를 구성하는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의 특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북한 국어학의 이론적 배경 및 전개 과정

1. 주지하다시피 북한 국어학의 일반언어이론적 배경은 마르 언어학, 스탈린 언어학, 주체사상 언어학의 순차로 진행되어온 성격을 갖는다. 이 이론적 배경의 진행 과정은 북한 국어학 체계의 전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언어이론적 배경이 어떤 양상으로 변모해 왔든 간에 언어와 사회구조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분모는 자율적 언어학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언어이론적 배경의 변모가 국어학 체계의 전개 과정보다는 정서법, 한자 사용, 외래어 수용 문제 등 언어정책이나 사전 편찬 등과 같은 응용적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일반언어이론적 배경의 변모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다음 연도의 과제로 남겨 두고, 다음 절에서는 북한 국어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마르크스·엔겔스, 마르, 스탈린 언어학 이론의 특징적 성격만을 간단히 요약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2.3 절에서는 북한 국어학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기술한 뒤, 장을 달리하여 본격적으로 북한 국어학의 체계를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

2.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언어학이론은 언어 구조가 화자의 의적 세계, 곧 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비록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어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저술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저술의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초기 저술에서부터 말기 저술에 이르기까지 일반언어이론적 사고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모순되기까지 하는 구절들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사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점에서는 그들에게 별로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보여주는 언급은¹⁾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언어에 대한 사고의 전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 언급은 곧 “의식은 사회적 산물이고, 언어는 (실천적인) 의식이다. 따라서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다.”라는 삼단 논법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 삼단 논법은 곧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어를 상부구조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왔다. 곧 언어란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시 영향을 주는 상부구조적 현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탈린 교시 이전의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증명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는데, 최초의 명시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언어 연구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볼로쉬노프의 『마르크스주의와 언어 철학』²⁾은 언어의 문체적 양상이 사회 구조와 역사적으로 연관성을 갖

1) “언어는 인간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이다. 언어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이고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오직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요구, 그러한 간절한 필요로부터만이 발생한다.”(K. H. Marx &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1845-6, 번역: 『독일 이데올로기』, 1957, 조선노동당출판사, 평양.)

2) 원저는 *Marksizm i filosofija jazyka* (V.N.Vološinov, Leningrad, 1929). 영역본

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³⁾

블로쉬노프의 연구 이래, 마르크스주의적 언어학은 언어와 사회 사이의 접촉의 모든 영역으로 탐구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드디어 1920년대 소련의 그루지아 출신 언어학자인 마르에 의해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이라는 기치가 올랐다. 1934년 마르가 사망할 무렵, 그의 생각은 이미 소련의 언어학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1950년 스탈린의 직접 개입이 있을 때까지 "당의 뒷받침 속에서 30~40년대 소련 언어학의 공식적 대변인의 영광을 누릴" ⁴⁾ 수 있었다.

마르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경제 혁명이 언어적 혁명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가장 기계적인 의미에서 상부구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중세 언어', '자본주의 언어', '사회주의 언어' 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언어의 모든 인식 가능한 측면은 가장 세밀한 음성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상부구조적 현상인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굴절 어미의 복잡성과 같은 형태론적인 특성들로 언어 단계를 구분하려 했는데, 중국어와 같이 형태론적으로 좀더 원시적인 언어들을 인도유럽 어나 셈 어들 같은 형태론적으로 더욱 복잡한 언어들보다 좀더 초기의 진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언어가 계급적 언어라는 그의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민족어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수반되어야 했다. 사실 마르는 전형적인 프랑스 노동자들의 말은 프랑스 자본주의자들보다도 오히려 전형적인 독일 노동자들의 말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으로는 L. Matejka & I.R. Titunik 공역의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Harvard Univ. Press, 1986) 참조.

3) 예를 들어, 블로쉬노프는 중세 프랑스와 르네상스 프랑스 사이에 엄밀하게 선적(線的)인 산문 문체로부터 더욱 회화적(繪畵的) 문체로 이동한 것은 권위주의와 독단주의로부터의 일탈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탈은 프랑스 사회의 계급 구조가 변화를 겪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4) 김하수(1989), 『북한의 국어연구(김민수 1989)』, 서평, 주시경학보 5, 181-2.

기에 이르렀다. 이런 기묘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에 반대하는 어떤 언어학도 1950년까지 소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든 종류의 구조주의론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1950년 일부의 언어학자들이 논리적인 연구를 행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실망하여 스탈린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스탈린은 그들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그 일에 개입했다. 1950년 5월 9일자 프라우다 지는 '소련 언어학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언어학에 관한 '공개토론'을 시작했다. 마르적 경향과 반마르적 경향의 기사 14편이 6주에 걸쳐 연재되었다. 6월 20일 스탈린은 마르적 접근에 완벽하게 반대하는 한 기사를 기고하였다. 그 이후 6주에 걸친 스탈린 자신의 몇 편의 기사를 포함해 모두 16편의 새로운 기사가 뒤를 이었으며, 이들 모두 스탈린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드디어 1월 4일 그 논쟁의 공식적인 막이 내려졌다. 소련 언어학에서 마르주의자들의 시대는 끝나고, 소련 언어학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스탈린이 취했던 조치는 문법의 자율성을 일부 확인해 준 것이고, 또한 언어를 더 이상 상부구조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문법을 마치 기하학과 유사한 것으로 본 견해가 등장했는데, 이는 마르 언어학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 이전으로의 환원은 아니었다'.⁵⁾ 그리고 언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구조주의적 언어학으로 관심을 옮긴 것도 아니었다. "의식은 사회적 산물이고, 언어는 (실천적인) 의식이다. 따라서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다."라는 삼단 논법은 조금도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스탈린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마르 언어학을 추방하는 데 직접 개입하게 된 이유는 1940년대 이후 2차세계대전을 겪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러시아 민족주의가 마르 언어학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를 상부구조로 보는 마르의 이론

5) 앞의 논문, p.185.

에 따르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족어의 존재는 부정되어야 했고, 바로 이 점이 스탈린이 강조하려 했던 러시아 민족주의와 충돌되었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교시 이후로 소련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이 융기하는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전통적인 비교 언어학적 연구가 급증했다는 것은 스탈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 준다. 러시아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려면 언어 이론은 러시아어의 우월성을 증명하는데 공헌해야 했지만, 구조주의 언어학은 모든 언어 구조(방언을 포함하여)는 동등하다, 곧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교조로 하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어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 국어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마르크스·엥겔스, 마르, 스탈린의 어떤 언어 이론도 언어를 사회와의 연관성 아래에 놓는 점에서 공통의 성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떤 이론도 서구 구조주의적인 사고, 곧 언어의 구조적 성격이 사회적 성격과는 무관하다는 언어 자율성과는 상충된다는 것이다.⁶⁾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국어학은 일관되게 사회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져 왔으리라는 예단이 가능하다.

3. 북한 국어학의 전개 과정은 4기로 대별되는데, 이 과정은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의 제정과 같은 언어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해방이후 「조선어철자법」의 공포가 이루어지기 전을 제1기(1945~1953)라고 한다면, 제2기(1954~1966)는 「조선어철자법」이 제정된 이후 문화어 운동⁷⁾이 전개되기 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어 운동이 전개되는

6) cf. Frederick J. Newmeyer, *The Politics of Linguis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chp. 5.

7) 문화어 운동이란 1966년 5월의 김일성교시에 따라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어울리는 새로운 언어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해 온 운동이다. 따라서, 문화어 운동을 통해 그 이전에는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었던 표준어를 북한에서는 문화어란 이름으로 대치한 효과를 낳았던 것이고, 이는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제 149조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바꾼 사실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의 가속화로 이

시기를 제3기(1966~1976)라 할 수 있고, 제4기(1976~)는 『문화어규범집』에 기초한 문화어 운동의 정착 시기라 할 수 있다.⁸⁾

이상과 같은 언어 정책의 변화시기를 대표하는 북한의 국어학 저서는 『조선어 문법 1 (어음론·형태론)』(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1960), 『조선어 문법 2 (문장론)』(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1963), 『조선문화어문법 규범』(1977), 『조선문화어문법』(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조선어학개론』(최정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등이 있으며, 이론문법 서로는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리근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고신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김용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김동찬, 1986) 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시대적 성격을 다르게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어학 체계를 살펴보면서 시대에 따른 체계 수립의 변모 과정을 기술하겠다.

III. 북한의 국어학 체계

1. 총론

1) 북한의 국어학 체계의 큰 특징으로 우선 의미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반 언어이론적으로 언어학은 언어의 층위(level)에 따라 음운론(phonology), 형태론(morphology), 통사론(syntax), 의미론(semantic)으로 하위 분류된다. 북한의 문법서에서 보이는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은 각기 일반언어적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과 거의 그대로 일치된다. 『조선어 문법』이나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조선문화어문법』 등 대부분

어졌다.

8) 고영근(1989) 등 참조.

의 저서는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 등으로 삼대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국어학 체계에서는 '의미론'의 저술이 단행본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하위분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⁹⁾ 물론 형태론과 문장론에서 각 형태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를 다루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미론의 중심 논제에 해당하는 어휘장(field theory), 성분 분석, 그리고 동의 관계, 다의 관계, 이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의 관계 등과 같은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언어학의 한 중심 하위분야인 의미론은 북한의 국어학 체계에서 완전히 빠져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조선어학개론』에서는 어음론, 어휘론, 문법론으로 삼대별하고, 문법론의 하위 분야로 품사론, 형태론, 문장론을 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¹⁰⁾, 여기서 어휘론은 어휘 의미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조선어학개론』에서 어휘론을 삼대분의 하나로 두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이나 문화어 운동이 어휘론적 수준의 것이며 따라서 그 성과를 반영하거나 이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

9) 언어의 층위(level)에 따른 하위 분야 별로 단행본을 내고 있는 『조선어리론문법』에서도 의미론을 확인할 수 없다. 『조선어리론문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 것은 다른 저서 체계에서는 하나로 묶이는 품사론과 형태론, 나아가 단어조성론을 각기 하나의 단행본 체계로 나누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문법학계에서 이야기되어온데 의하면 형태론이란 문장론과 함께 문법의 2대구성부분을 이루며 문장론이 문장에 관한 문법리론이라면 형태론은 단어에 관한 문법리론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어리론문법>에서는 일정한 근거 밑에 단어에 관한 문법리론 가운데서 품사에 관한 리론은 따로 떼어서 <품사론>을 설정하였고 단어의 구성과 관련된 특성의 연구도 따로 떼어서 <단어조성론>을 설정하였다.”(『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리근영, 1985 : 3))

그리하여 『조선어리론문법』의 '형태론'은 문법적 형태와 그것이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 그리고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론적인 문법적 범주와 관련된 문법현상을 다루는 것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어 있다.

10) 품사론, 형태론은 대부분의 북한 국어학 저서에서는 형태론의 하위 분야로 다뤄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문법론의 밑에 두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가 짐작된다. 이는 이 책의 구성적 특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학개론』이라는 서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 책은 제1편 조선어와 조선글자의 발생발전, 제2편 조선문화어건설과 그 개화발전, 그리고 어음론, 어휘론, 문법론을 다루고 있는 제3편(별도의 제목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2편이 '조선문화어건설과 그 개화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한자사용의 폐지, 어휘정리, 인민적인 언어규범의 확립 등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다른 저서들과는 달리 어휘론을 독립적으로 내세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국어학 체계는 언어 층위 상의 하위 분야로 볼 때 의미론을 배제하고 있음을 한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 국어학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규범성에 있다. 2.3절에서 북한 국어학의 전개 과정을 약술했지만, 2.2 절에서 우리는 북한의 국어학이 그 전개 과정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사회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졌으리라 예단했었다. 이는 북한의 언어이론적 배경이 되는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이 갖는 일관된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예단은 국어학 전개 과정의 각 단계를 대표하는 저서들의 서문을 분석하면서 쉽게 사실로 판명될 수 있었다.

우선 문화어 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의 이른바 제2단계를 대표하는 『조선어 문법 1』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선어 문법>은 현대 조선어 표준어의 문법적 특성을 밝히고 그 규범을 세우며 조선어가 가지는 풍부한 표현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서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그리고 문법 연구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현대 조선어 표준어의 어음적 특성들을 문법의 앞에서 밝히었다.

이 <문법>은 규범적인 성격과 아울러 서술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조선어를 정확하게 그리고 잘 다듬어서 사용하려는 조선 인민에게 필요한 문법적 내지는 어음론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한다.(pp. 1-2)

또한 『조선어 문법 2』(1963)의 '일러두기'에서는 "문장론의 연구는 조

선어의 규범화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글의 문풍을 개선하는 데서 아주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학을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진술은 문화어 운동이 시작된 이후 간행된 『문화어문법규범』에서는 이미 서명에서 드러나듯이 그 규범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술은 회피하고, 『조선문화어문법』(1979)의 머리말을 살펴보면 규범적 성격뿐만 아니라 주체 사상에 따른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구조에 대한 연구 서술은 철저하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끔 진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문법구조가 사람들의 말과 글을 성립시켜주면서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위 진술에서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위하여”는 주체 사상적 성격을, “문법 구조에 대한 연구 서술은 복무하게끔”에서는 규범적 성격을, 나아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언어 기능”에서는 마르크스 언어학의 주요한 한 특성인 언어 도구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서명으로 보자면 가장 기술 언어학적 성격을 띠 것으로 보이는 『조선어학개론』(1983) 역시 규범언어학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1.1. 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책은 구성 자체가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어를 어떻게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2편으로 독립시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주체 사상이 공고해져 가는 시기에 나온 일련의 『조선어리론문법』은 북한 언어학의 규범성을 비롯한, 도구관, 계급성, 이념성, 주체 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어학을 반동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모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문법리론, 문장리론은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서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리념이 반영된 말과 글, 근로인민대중이 알기 쉽고 쓰기 편리한 언어적요소들에서 전형성을 찾고 일반화하는 것을 본성적요구로 내세워야 한다. (중략)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반동언어리론이 활개침에 따라 문법분야, 문장론분야에도 여러가지 부르조아적, 복고주의적, 사변적 <문법리론>이 떠돌고 있다.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주체적립장에서 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서방의 <문법리론>을 답습하여 <모조화>하는 일이 꺼리낌 없이 허용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 문법학계의 형편이다.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 pp. 6-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국어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규범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범성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강화되어가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곧 초기의 이론이 총론적 기술에서 규범성을 내세웠다고는 하지만, 그 각론의 실제 기술에서는 규범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은데 반해, 주체사상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점차 그 실제 기술에서도 마치 김일성 교시를 구체화시켜나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문법 기술이 이루어진 느낌을 줄 정도로 규범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가기 시작한다.

다음 절들에서는 북한 국어학 체계의 3대 하위분야인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의 성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어음론

1) 어음론은 언어 총위상으로 볼 때 음운론(phonology)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어떤 총위보다도 이데올로기적 성격과는 가장 거리가 먼 총위라 할 수 있다. 어음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선어 문법 1』(1960), 『조선어문화어문법』(1979), 『조선어학개론』(1983) 등이다.

2) 『조선어 문법 1』(1960)에서 다루어지는 어음론 분야는 서론을 제외하면¹¹⁾, 1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15개의 절은 <어음론>의 본

음'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¹⁴⁾

자음 목록은 19개로 남한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그 체계적 위치 규정이나 명명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우선 자음의 분류 기준으로 1) 소음과 성대음의 참가, 2) 소음이 이루어지는 위치, 3) 소음 조성 방법, 4) 기음과 후두 밀폐 과정을 제시한 뒤, 국어의 모든 자음을 1)에 의하여 유향자음과 소음적 자음으로 구분하고¹⁵⁾, 2)에 의하여 량순음, 전설음, 후설음, 후두음으로 구분하며, 3)에 의하여 파렬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구분하고, 4)에 의하여 순한 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어의 자음체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p.16)

조음이 이루어지는 위치 조음 조성 방법			량순음	혀소리			후두음
				전설음		후설음	
				치음	전구개음	연구개음	
소 음 적 자 음	파렬음	순한 소리	ㅂ	ㄷ		ㄱ	
		거센 소리	ㅃ	ㄸ		ㅋ	
		된 소리	ㅍ	ㅌ		ㆁ	
	파찰음	순한 소리			ㅈ		
		거센 소리			ㅊ		
		된 소리			ㅉ		
	마찰음	순한 소리			ㅅ		ㅎ
		된 소리			ㅆ		
	유향 자음	밀폐통과음	코'소리	ㅇ		ㅇ	
		뒤집소리			ㄹ		

위 체계에서 조음 방법에 의한 분류는 그 명칭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남한의 자음 분류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음 위

14)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음의 음가를 다룬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모음 [ɿ]가 비원순모음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모음 [ɿ]도 다른 비원순모음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 원순화된다. 더구나 이것은 강조 악센트가 떨어질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ɿ] 모음의 원순화는 그것을 원순화 모음으로 규정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해서 [ɿ]를 발음할 때에 입술의 원순성 정도가 일반 언어학적으로 말하는 원순화 모음에 미치지 못한다. (중략) 따라서 조선어의 모음 [ɿ]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상대적 견지에서 비원순화 모음이라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p.18)

15) 유향 자음과 소음적 자음은 유성 자음과 무성 자음에 대응하는 것이다.

치에 의한 분류는 차이점을 보이는데, 특히 ‘ㅅ, ㅆ, ㄷ’을 ‘ㅈ, ㅊ, ㅌ’과 같이 전구개음(前口蓋音)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전구개음은 “혀끝이 경구개 앞쪽을 향하여 작용할 때에 이루어지는 음”(p.14)으로 정의되어 경구개음과 같은 음으로 기술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ㅅ, ㅆ, ㄷ’을 경구개음에 귀속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구개음이라는 용어도 다소 생소하다. 후설음의 연구개음을 고려한다면 전구개음보다는 경구개음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할 것이다. 특히 구개음화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구개음화를 “어떤 자음이 구개모음 [ɨ]에 동화되어서 경구개음으로 되는 현상”(p.55)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과 ‘전구개음’의 용어는 기술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제8절 음절에 대한 기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어와 단어가 접촉하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어음이 서로 연결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음절을 구분한다.”(p.41)는 진술이다. 곧 ‘지금 온다’에서 ‘금’의 종성 ‘ㅁ’이 ‘온’의 초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금’의 종성이 된다는 것이다.

초분절 요소로 악센트(제9절)와 어조(제10절)가 다루어지고 있다. 악센트는 다시 ‘단어 악센트, 어음의 장단, 문장 악센트’로 하위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음의 장단’을 ‘악센트’의 하나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분절적 음운으로 음의 고저, 장단, 강약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의하면 ‘악센트’는 음의 강약에 해당하는 것인데, ‘단어 악센트’를 단어 중의 음절의 높낮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p.42)도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11, 12절에서는 각각 어음의 변화와 어음 교체를 다루고 있다.

‘어음의 변화’란 어음 연쇄 속에 있는 어음들이 상호 작용해서 일으키는 변화를 가리키는데, 이를 그 결과의 측면에서 “1) 어떤 어음이 다른 음운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종으로 되는 것, 2) 완전히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p.47)으로 나누고 있다.¹⁶⁾

‘어음의 변종으로 되는’ 변화로 유성음화, ㄹ의 설측음화, ㄹ·ㄴ의 구개음화, 음절말 파열음의 내파화, 비모음화 등을 들고 있다.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화는 ‘결합적 어음 변화’와 ‘위치적 어음 변화’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는 “앞뒤에 있는 어음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일어나는” 변화로서, 이에는 어음 동화¹⁷⁾, 모음 조화, 어음의 탈락, 어음의 첨가, 된소리화¹⁸⁾, 거센소리화 등을 예로 들고 있고, 후자는 “일정한 위치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로서 두음 법칙과 끝소리 현상을 예로 들고 있다(p.50). 이 어음 변화에 대한 기술은 다소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밀한 관찰에 의한 것으로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어음 교체는 “동일한 형태부 즉 동일한 어근, 어간, 접두사, 접미사 또는 토들이 여러 가지의 어음적 변형을 가지고 나타나는”(p.79) 것인데, 이는 다시 ‘어음론적 교체’와 ‘역사적 교체’로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다. 전자는 “어음 변화의 결과로 생긴 음운의 교체”(p.80)로서 자음의 교체와 모음의 교체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후자는 “현행 발음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역사적 시기에 어음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음운의 교체”(p.89)로서 불규칙 동사들의 어간말 자음의 교체¹⁹⁾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어음 교체’는 형태음소론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어음론의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은 표준발음과 어음전사에 관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앞의 어음 변화와 교체와 상당 부

16) 여기서 1)은 음성학적 교체, 2)는 음운론적 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7) ‘이’모음 역행 동화에 대한 기술은 ‘비교’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동화 현상은 “규범화 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p.56)이라 하여 표준 발음에서 제외되어 있다.

18) 이 항목의 기술에는 이른바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19) 끝 ㅂ, ㄷ, ㅅ, ㄹ 불규칙 용언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다. 여기서 ‘ㄹ’불규칙은 남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다.

본 중복되므로 상술은 피하기로 하겠다. 여하튼 이 부분은 기술언어학적 체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북한 국어학의 규범언어학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3) 『조선문화어문법』(1979)에서의 어음론 분야는 1) 말소리의 발음, 2) 소리마디의 발음과 형태부의 소리 구성, 3) 단어의 발음, 4) 문장의 발음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소리는 낱소리와 뜻소리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낱소리란 “구체적인 소리값을 가지고 서로 구별되는 말소리”(p.17)로, 뜻소리는 “단어의 어음적측면을 이루는데 리용되면서 단어를 구별시키는 데 복무하는 일반화된 말소리”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런 정의에 따르면, 뜻소리는 음운(phoneme)에 해당하고, 낱소리는 음운의 음성적 실현형(realization), 곧 변이음(allophone)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²⁰⁾

음운 목록으로 홀모음 10개, 겹모음 11개, 자음 19개와 같이 모두 40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은 『조선어 문법 1』과 일치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기술이나 체계 설정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모음 목록에서 겹모음 11개 가운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한 겹모음이 아니라 겹모음적인 것 또는 준겹모음이라고 하여 반모음²¹⁾과 홀모음의 결합으로 본 것은 『조선어 문법 1』의 기술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만을 순수한 겹모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이해되기 어렵다. 이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겹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두개이상 하나의 소리마디안에서 련이어 발음되는 것”(p.23)이라는 정의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정의는 일반언어이론적인 설명과는 상충된 진술이라 할 수 있다.²²⁾ 홀모음의 체계에서는 『조선어 문법 1』에서 문

20) “낱소리는 결국 뜻소리의 실현형태들이며 뜻소리는 낱소리들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p.20)라는 언급을 참고할 것.

21) 반모음으로는 j, w를 설정하고 있다.

22) 모음 ‘-이’는 점차 홀모음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

제되었던 기술이 바로잡히고 있는데, 곧 뒤모음(곧, 후설모음)으로 규정되었던 'ㄱ'를 'ㄷ'와 높낮이에서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모음(곧, 중설모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원순모음으로 처리되었던 'ㄷ'를 둥근입술모음(곧 원순모음)으로 기술하고 있어, 『조선어 문법 1』보다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음 체계는 다음의 도표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혀뒤	터침	ㄱ	ㄲ	ㅋ	ㅇ
혀앞	터침	ㄷ	ㄸ	ㅌ	ㄴ
	뒤김				ㄹ
	터스침	ㅈ	ㅉ	ㅊ	
	스침	ㅅ	ㅆ		
입술	터침	ㅂ	ㅃ	ㅍ	ㅁ
목청	스핍	ㅎ			

여기서 '터침'은 파열, '터스침'은 파찰, '스침'은 마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체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음 위치상의 분류 가운데 '혀앞'(곧 전설) 자음에 대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어 문법 1』에서 보이는 문제점이 여기서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어 있다. 'ㅅ, ㅆ'과 'ㅈ, ㅉ, ㅊ'뿐만 아니라 'ㄷ, ㄸ, ㅌ, ㄴ'이 조음 방법상에 의해 구별될 뿐 조음 위치상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²³⁾

‘소리마디의 발음과 형태부의 소리구성’에서는 음절(‘소리마디’)을 다

기에 일부 지방에서는 ‘ㄷ’로 어떤 지방에서는 ‘ㄴ’로 발음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ㄱ’처럼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p.30)

- 23)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이들이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꼭같은 발음위치에서도 목청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말소리를 낸다.

실례를 들면 혀앞소리를 들 수 있다. 혀앞소리는 날숨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 터침소리(ㄷ, ㄸ, ㅌ), 스침소리(ㅅ, ㅆ), 터스침소리(ㅈ, ㅉ, ㅊ)가 발음되는데 이 소리들은 거의 비슷한 발음위치에서 나지만 혀앞과 이음, 또는 입천장과의 접촉 방식이 다르므로 그 소리값이 뚜렷이 구별된다.”(p.27)(밑줄 - 필자)

문 부분과 '형태부의 소리구성'을 다른 부분으로 양분된다. 후자는 특히 어간이 활용할 때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ㄷ, ㅂ, ㅅ, ㄹ, ㄴ, ㄹ, ㅁ, ㄴ' 불규칙 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남한 문법에서는 형태론의 기술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조선어 문법 1』에서도 어음론에서 이 분야의 기술이 다루어지고 있음은 앞서 지적인 바이다.

'단어의 발음'은 1) 단어안에서의 말소리들의 발음, 2) 단어발음에서의 높고낮음과 길고짧음, 3) 단어의 뜻빛깔과 말소리의 바뀔, 4) 단어발음을 류창하게 하는 몇가지 다른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1)에서는 연음('이음')과 절음('끊음'), 동화('소리닮기')²⁴⁾, 동음회피('같은소리피하기'), 모음조화('모음의 어울림'), 탈락('소리빠지기')와 삽입('소리끼우기'), '소리바꾸기'²⁵⁾ 등을 다소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는 초분절적 요소에 음의 장단('길고짧음'뿐만 아니라 고저('높고낮음')를 인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에서는 음성상징어에서 보이는 어감의 분화를 기술하고 있다. 4)는 규범문법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문장의 발음'은 이 책에서 상당한 분량(pp. 126-167)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이 부분은 남한에서는 음운론 개론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매우 상세하고 정밀하게 기술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억양'을 '끝맺음억양'과 '중간억양'으로 나누고, 억양의 요소로는 '높낮이선', '틀동', '문장의 소리마루', '끊기', '속도', '소리빛깔'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높낮이선은 억양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데, 그 기능은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 등과 같이 문장의 갈래

24) 이 부분에서는 자음동화, 구개음화('입천장소리되기'), |모음역행동화('앞모음되기')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모음역행동화의 예로 '마디[매디]'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이 단어가 역사적으로 '마더'에서 온 것이므로 |모음역행동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술해 왔던 것이다.

25) 이 부분에서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말소리줄이기(축약)'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를 구별해 주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하여 문장의 갈래에 따른 높낮이선의 차이점을 정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억양의 나머지 요소들은 남한의 음운론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기술되고 있어 북한 음운론의 한 특징적 성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언어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는 북한 언어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따른 귀결이 아닌가 한다.

4) 『조선어학개론』(1983)의 어음론 분야는 말소리에 대한 일반적 지식, 말소리의 물리음향적 성질과 발음기관, 조선어의 음운과 그 변종, 조선어의 음운체계, 말소리의 결합, 소리마루·억양, 말소리의 변화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2편 음운의 표식에 대한 기술이다. 이 표식은 앞의 두 저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에 대한 서술 부분을 관찰해 보면 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의 음성 자질(phonetic feature)이 북한 국어학에도 도입되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음운을 이루는 표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표식이 음운을 구별해주는 시차적표식으로²⁶⁾ 되는 것은 아니다.”(p.203)라는 진술에서 우리는 이 표식이 음성 자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두 저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상관적 대립의 개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표식없는’ 계열과 ‘표식있는’ 계열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무표적(unmarked) : 유표적(marked)’의 대립을 말하는 것으로 ‘markdness’의 개념도 소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음운체계에 대한 기술에서 우선 단모음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이 10모음 체계로 되어 있다.

26) 여기서 시차적 표식은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7) 남기심(1988), 『조선어학개론』(최정후, 1983) 서평, 주시경학보 2, P.177.

		앞모음		뒤모음	
		동글지않은모음	동근모음	동글지않은모음	동근모음
높은모음	달린모음	ㅣ	ㄱ	ㅡ	ㅌ
가운데	절반		ㄴ		ㄷ
높은모음	달린모음				
가운데	절반	ㅑ		ㅓ	
낮은모음	열린모음				
낮은모음	열린모음	ㅕ		ㅗ	

이 모음 체계는 남한에서 기술되어온 그것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조선어 문법 1』에서 비원순모음으로 처리되었던 ‘ㅌ’가 원순모음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ㅡ, ㅓ, ㅗ’가 모두 후설모음으로 기술되고 있어 실제 발음보다는 체계상의 대립을 고려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지방에서 ‘ㄴ, ㄱ’가 단모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²⁸⁾ 겹모음은 『조선문화어문법』처럼 반모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개념 파악은 다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문화어문법』에서 준겹모음으로 규정되었던 ‘ㅑ, ㅓ, ㅕ, ㅗ, ㅕ, ㅗ, ㅕ, ㅗ’ 및 ‘ㅑ, ㅓ, ㅕ, ㅗ’ 등이 모두 겹모음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문화어문법』에서의 정의와는 달리 겹모음의 정의를 “발음하는 도중에 입안의 울림통이 달라지는 모음”이라 하여 일반언어이론적인 정의에 접근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겹모음을 하나의 단일한 음운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조선어 문법 1』의 진술과 일치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자음 체계는 다음의 도표로 제시되어 있다.

28) 『조선어학개론』(pp.219-20)에서는 ‘ㄴ’은 ‘ㅕ’ 또는 ‘ㅗ’로 발음하며, ‘ㄱ’은 ‘ㅌ’ 또는 ‘ㅣ’로 발음된다 하여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남한의 실제 발음형과 다름을 보이고 있다.

		입술 소리	혀앞소리			혀뒤소리	
			혀끝소리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인두음
소 음	터짐 소리	순한 소리	ㅂ	ㄷ			ㄱ
		된 소리	ㅃ	ㄸ			ㄲ
		거센 소리	ㅍ	ㅌ			ㅋ
		순한 소리					
	스침 소리	순한 소리		ㅅ			ㅇ
		된 소리		ㅆ			
	터스침 소리	순한 소리			ㅈ		
		된 소리			ㅊ		
		거센 소리			ㅊ		
		순한 소리					
울림 소리	코소리	ㅁ	ㄴ			ㅇ	
	튀김소리		ㄹ				

위 자음 체계는 용어의 차이를 제외하면 남한의 그것과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²⁹⁾, 앞서의 두 저서에서 보였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있다. 울림소리를 코소리와 튀김소리로 나눈 것이라든지, 혀앞소리를 혀끝소리, 치경음, 경구개음으로 나눈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다.

‘말소리의 결합’에서는 ‘소리마디’(음절), ‘소리토막’, ‘소리동강’ 이외에도 초분절 요소를 다루고 있는 ‘소리마루·억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 후자에 대한 기술은 『조선문화어문법』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여, 그것을

29) 남한에서는 혀끝소리 하나로 묶이는 것을 혀끝소리 ‘ㄷ, ㅌ, ㄸ, ㄹ’과 치경음 ‘ㅅ, ㅆ’으로 나눈 것이 다른 점이다.

압축해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그 강조하는 정도가 약해진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의 전체 분량, 특히 어음론이 차지하는 분량이 적은 탓이 아닌가 한다.

‘말소리의 변화’에서는 ‘말소리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의한’ 변화인 ‘결합적 변화’와 ‘일반적인 발음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위치적 변화’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닭기’(동화), ‘이화, 빠지기(탈락), 끼워넣기(삽입)’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두음법칙과 받침법칙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술은 통시태적 변화와 공시태적 변이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모음동화를 다루는 ‘모음닭기’에서는 현대국어의 공시태적 방언 현상인 |모음역행동화가 기술되는 한편으로 역사적 음운 현상인 원순모음화가 기술되고 있으며, ‘모음과 자음 사이의 닭기’에서는 공시적인 구개음화 현상과 통시적인 전설모음화 현상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3. 형태론

1) 북한에서는 형태론이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곧 대부분의 저술에서 품사론, 단어조성론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은 3.1 절에서 서술한 바이다. 형태론 분야의 체계적 성격의 분석은 『조선어 문법 1』, 『조선문화어문법』, 『조선어학개론』,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을 주대상으로 이루어진다.³⁰⁾

2) 『조선어 문법 1』은 형태론의 대상, 단어의 구성, 품사(분류 기준)를 다루고 있는 서론 부분을 제외하면, 본론 부분은 각품사별로 절을 달리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부로 단어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p. 119)고 하여, ‘형태부’라는 용어를 도

30)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김동찬, 1986)에 대해서는 이윤하(1991, 주시경학보 7)를 참조할 것.

입하고 있다. 이 용어는 그 정의상 남한의 형태소와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 지칭된 대상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 또한 이형태 및 교체의 개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색도 보인다.³¹⁾

형태부의 갈래로 어근, 접두사, 접미사, 토를 들고 있다. 접미사는 다시 '단어조성의 접미사'와 '형태조성의 접미사'로 구별하고 있다. 단어조성의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조성하는 접미사"(p.120)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곧 파생 접미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한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에 형태조성의 접미사는 "단어의 형태를 조성하는 접미사를 말하는바, 어근에 이 접미사를 붙임으로써 단어의 문법적 의미가 표현되는"(p.122) 접미사로서, 상³²⁾의 의미(사역 또는 피동)를 갖는 '-이-, -히-, -리-, -기-'뿐만 아니라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 시칭³³⁾의 의미(과거 또는 미래)를 나타내는 '-았-, -았었-, -겠-', 그리고 나아가서는 체언형을 만드는 '-음, -기'까지도 포함되는 특징을 이룬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이-, -히-, -기-, -리'는 접사로, 존칭·시칭의 접미사는 선어말 어미(prefinal ending)로, 체언형의 접미사는 어말 어미(final ending)와 하나로 다루고 있는 남한의 기술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³⁴⁾

이 책에서 이미 어근과 어간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어근은 "모든 동족어에 공통적이며 그 이상 더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유의미적 부분"(p.119)이고, 어간은 "접두사에서부터 토의 직전에 이르기까지의 부분"(p.122)으로 정의되고 있어, 용어에 있어서나 그 구체적인 정의에 있어서나 남한의 기술과 그대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³⁵⁾ 그러나 접미사의 개념이 어미에 해당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

31) 유동석(1989), 『조선어 문법 1』 - 형태론 - 서평, 주시경학보 4, 탑출판사.

32) 상은 남한에서는 aspect의 번역 술어로 사용되어 시간 관계 범주의 하나를 이루지만, 북한에서는 피동과 사역의 태(voice)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3) 시칭은 남한의 시제(tense)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34) 이런 태도는 체언형 접미사를 제외하면, 유동석(1989)의 지적대로 최현배(1937)에서 '보조어간'으로 처리한 것과 근사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기 때문에 '보이셨음(보+이+시+었+음)'이 하나의 어간으로 기술되는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있다³⁶⁾.

'토'에는 체언의 격형태를 조성하는 격토, 용언의 종결형을 나타내는 종결토, 접속형의 접속토, 규정형³⁷⁾의 규정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언의 어미뿐만 아니라 조사까지 토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종합적 체계의 문법인 것이다. 이는 남한과는 다른³⁸⁾ 북한 국어학의 일관된 기술 방식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형태 표지가 없는 경우도 그 문법적 의의가 있다고 하여 '제로 접미사' 내지는 '제로 토'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단어의 형태는 각종의 형태 조성의 접미사 또는 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이 형태의 체계에서 아무런 접미사 또는 토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표식이 없다는 사실이 단어의 한 문법적 형태를 다른 문법적 형태로 구별하는 데 역할을 한다. 즉 형태의 체계에서 접미사나 토가 없는 사실도 일정한 의의를 가지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제로접미사> 또는 <제로 토>라 불린다.(124-5)

품사 체계는 체언의 격 형태를 용언의 어미와 함께 토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남한과는 달리 조사는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북한의 품사 체계는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의 8품사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체계는 현재에까지 지속

35) 어간을 파생 어간과 합성 어간으로 나누는 것 역시 일치를 이루고 있다.

36) 곧 후술되지만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하는 '-ㄴ', '-ㄹ'을 규정토라 하여 토의 하나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하는 '-ㅁ', '-기'도 접미사가 아니라 토의 하나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이치에 맞는 기술 태도일 것이다.

37) 관형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38) 남한의 문법 체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종결토, 접속토, 규정토를 어미로 처리하는 반면, 격토는 독립된 품사의 하나인 조사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되고 있는 북한 품사 체계의 주요한 한 특징으로서, 조사의 품사 불인정, 감탄사를 감동사로 부른 점을 제외하면 남한의 품사 체계와 거의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은 조어론에 해당하는 단어조성론이 함께 다루어지지 않고 품사론에 종속시켜 해당 품사 기술의 뒷부분에서 나누어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기술하는 뒷부분에 각기 명사의 단어 조성, 동사의 단어 조성, 형용사의 단어 조성, 부사의 단어 조성이 다루어짐으로써 단어 조성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1) 단어의 어휘적 의미의 성격, 2) 매개의 품사에 고유한 문법적 범주의 체계이며 또한 이와 연결된 형태 조성의 체계, 3) 그 단어의 부류가 놓일 수 있는 문장론적 기능의 측면, 4) 그 품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조성적 수법의 체계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1), 2), 3)은 전통적인 품사 분류의 세 기준인 의미, 형태, 직능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그런데 4)는 전통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기준인데, 이는 소련 언어학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있다.³⁹⁾

명사 항목은 명사의 정의, 명사의 종류, 명사의 문법적 형태, 명사의 문장론적 기능, 명사의 단어 조성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명사의 종류에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 완전 명사와 불완전 명사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의 구분을 더하고 있다.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는 곧 유정 명사(animate noun)와 무정 명사(inanimate noun)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들의 형태론적 특성으로 각각 여격 '에게'와 '에'를 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유무정 명사의 구별은 인구 제어와는 다른 국어의 한 중요한 특성인데, 이 책에서 이미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9) "김수경(1956 : 50-51)에 의하면 소련의 언어학에서도 단어조성의 유형을 품사 분류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한다." (유동석 1989:244, 주7).

명사의 문장론적 기능은 명사가 주어, 술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간략히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명사의 단어 조성은 주로 접사에 의한 단어 조성, 곧 파생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적할 만한 것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양으로 기술되고 있는 명사의 문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할 만한 사항이 보인다.

명사의 문법적 형태는 격 범주, 용언적 형태, 도움토 형태 등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명사의 격 체계는 주격, 속격, 대격, 여-위격, 조격, 구격, 호격 및 절대격 등과 같이 여덟 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⁰⁾ 각 격은 형태와 의미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는데, 각 격의 의미에 대한 기술은 매우 자세하며,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른 것임을 볼 수 있다. 가령, 속격 '의'의 의미로 주체, 객체, 동격, 전체, 형성자, 속성 보유자, 특성 지정의 관계, 행동적인 표식, 소유자, 사회적 관계, 양과 정도, 장소, 시간, 비유적 관계, 재료, 용도 등을 예를 들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격의 기술에서 '되다', '아니다'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를 주격으로 처리하여 보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또한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점은 절대격의 설정이다. 이는 앞서 인용했던 '제로 접미사' 또는 '제로 토'를 인정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명사의 용언적 형태란 체언에 용언적 성격을 주는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를 이르는 것이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사 'be'에 해당하는 '이다'의 '이'를 체언을 용언으로 바꾸는 일종의 용언화 접미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체언에 '이다'가 붙어 용언처럼 활용하는 것은 국어의 한 특징으로서, 이 때의 '이다'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는 국어 문법 기술이 시작된 이래 하나의 쟁점으로 논란되어 왔던 것인데,⁴¹⁾ 이

40) 격의 형태는 주격 '가(이)', 속격 '의', 대격 '를(을)', 여-위격 '에', '에게', '에서', 조격 '로(으로)', 구격 '와(과)', 호격 '야(아)', '여(이여)'이며, 절대격은 아무런 격 형태가 없는 경우이다.

41) '이다'와 관련된 문제는 『주시경학보』 13집(1994)에 특집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책에서는 이를 접미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도움토는 1) 어떤 형태 밑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욱 정밀 보충하여 주는 것들(예 : 다가, 다, 서, 써, 그려,), 2) 문장론적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예 : 더러, 께, 한테, 께서, 랑(이랑), 하고, 처럼, 보다, 마는,), 3)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행동, 상태, 또는 표식)을 언급되는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일정하게 관련시키는 것들(예 : 나(이나), 나마, 는(은), 도, 라도(이라도), 마다, 마저, 만, 부터, 서전, 조차, 커녕, 까지, 야(이야), 야말로(이야말로),)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다. 1)에서 '에다'의 '다', '로서'의 '서', '로써'의 '써'를 따로 떼어내 토로 처리한 것은 형태 분석의 태도가 세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2)의 대부분은 격토로도 처리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도움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수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남한에서 수관형사로 처리되는 '한, 두, 세, 네, 스무' 등을 수사에 포함시키고 이를 '하나, 둘, 셋, 넷, 스물' 따위의 어음론적 변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⁴²⁾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미정·의문 대명사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다. 그 세부적 진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한 가지만 지적해 보자면, '이리', '그리', '저리'를 방향 지시 대명사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동사는 품사로서 동사의 의미, 타동사와 자동사, 동사의 형태, 동사의 문장론적 기능, 단어 조성 등으로 나누어서 다루어지고 있다. 타동사와 자동사는 전이성(轉移性)과 비전이성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동사의 형태는 종결형, 비종결형(접속형과 규정형), 체언형으로 나누고 각형태

로 참고 바란다.

42) 남한의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다섯 사람'의 '다섯'을 관형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수사의 절대격형으로 보고 있다. 실상 '다섯 사람'의 '다섯'을 관형사로 보면 '시골 풍경'의 '시골'도 관형사로 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cf.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1987, p.97.).

밑에서 그것들이 가지는 문법 범주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문법 범주로는 토에 의하여 표현되는 '계칭, 식, 법' 범주와 접미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시칭, 존칭, 상' 등의 범주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계칭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로 정의되는데, 이는 화계(speech level)와 일치하는 정의이다. 계칭은 '존대, 하오, 하계, 해라, 반말' 등의 다섯 등급으로 구별되고 있다. 그 구별의 기준으로 상하 관계(곧 power)뿐만 아니라 친소 관계(곧 solidarity)도 한 몫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가령, '하오'의 기술에서 보이는 "그리 친숙하지 못한"이라든지, '하오'에서 보이는 "서로 친숙한 관계에 있는"이라든지, 반말에서 "지극히 친밀한"이라든지 하는 언급은 친소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은 "언어 행위의 기능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 듣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설정되는 각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p.283)로 정의되고 있어 우리의 문체법에 대응함을 확인한다. 식의 갈래는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의 넷으로 나뉘는데, 이는 후술될 진술의 목적에 따른 문장의 유형과는 직결된다.

'법'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설정하는, 행동(또는 상태)과 현실과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p. 284)로 정의되는데, 양태(modality)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직설법과 가능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동사로써 표현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의 사실(과거, 현재, 미래)로 인정하고 그 행동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후자는 동사로써 표현된 행동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 행동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직설법과 가능법은 서술식과 의문식에서 각기 하위 범주로 나뉘고 있는데, 서술식에서 직설법과 가능법을 나타내는 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곧 서술식에서 직설법을 나타내는 종결토로는 단순한

확인을 나타내는 토(예: -비니다, -습니다, -나이다, -노이다, -외다, -오, -소, -네, -다, -노라, -아 등), 확인을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토(예: -옵니다, -느니, -것다, -느리다, -나라, -지 등), 그리고 확인과 함께 감탄을 나타내는 토(예: -군, -구려, -구나, -구면, -누나, -누만, -걸, -다니, -아라, -도다) 등이 있으며, 가능법을 나타내는 토로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토(예: -리다, -리, -음세, -마, -을게, -을걸, -지), 추측을 나타내는 토(예: -리다, -리, -을거세, -리라, -리로라, -을걸, -을거야, -올러라, -올레라, -지), 행동에 대한 의무성 등을 나타내는 토(예: -을지라, -을지나라, -을지어다, -을진저) 등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한편, '-더-'가 첨가된 '-더라, 데, 비디다, -더이다, -더니다, -더구나 등'은 특별한 명칭이 없기는 하지만, 시칭 범주가 아니라 법 범주의 테두리 내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곧 "이야기 하는 사람이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또는 자신이 느낀 사실이란 것을 나타내는"(p. 298)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시칭은 "행동의 순간과 담화의 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시제(tense)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담화의 순간'은 발화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동의 순간'은 사건시 내지는 상황시로 이해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행동의 순간이 없는 용언으로 된 구문, 가령 작용 동사나 형용사 구문은 시칭 범주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시칭 형태가 결합할 수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칭을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현재 시칭은 아무런 시칭 접미사가 끼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의 종결토⁴³⁾에서는 'ㄴ/'

43) 이에는 '-다', 그리고 '-구나', '-군', '-구려', '-구면', '-도다' 등이 지적되어 있다. 여기에는 의문법에 나타나는 '-는가', '-느냐', 그 밖의 '-는지라, -는걸, -는데, -는지' 등등에서 나타나는 '-느-'의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는' 또는 '는'이 끼이고, 과거 시칭은 과거형의 '았', 선평거형의 '았었'이, 미래 시칭은 '겠'이 끼이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기술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재형의 'ㄴ/는'을 분석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더-'⁴⁴⁾와 '-리-'를 시칭 체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런데 시칭 범주의 기술에서 무엇보다도 돋보인다고 할 만한 기술은 '절대적 시칭'과 '상대적 시칭'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⁵⁾ 각 시제형의 의미를 상술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가령 현재형의 의미로 "행동이 바로 담화 순간에 진행된다는 것" 이외에도 "자연의 법칙, 관습상의 행동", "예상되는 미래의 행동", "역사적 현재", "명령", "병렬적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기술이라 할 만하다.

존칭 범주에서는 '-시-'의 의미에 대한 기술이, 상 범주에서는 능동상과 사역상, 피동상에 대한 기술이 모두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사의 접속형에서는 합동적 관계, 대립적 관계, 분리적(선택적) 관계, 시간적 관계(동시성, 선행성 등), 행동의 방식·정도, 원인·근거 등의 관계, 목적·의도, 조건, 양보, 사상이나 담화의 내용 등을 나타내는 10개의 접속토를 나누고, 각 접속토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 이에는 의미론적 진술만 이루어질 뿐 통사론적 제약에 대한 기술은 볼 수 없다. 가령, '-거든' 접속절이 평서문과 통합 관계를 이루기 어려움에 대한 기술은 발견할 수 없다.

동사의 규정형에서는 시칭의 범주와 관련하여 '-는', '-ㄴ', '-던', '-르'의 항목으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여기서는 '-느-', '-더-'의 분석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사의 체언형에서는 '-ㅁ', '-기', '-지'를 체언형을 만드는 접미사로 보고 있음이 특징적임은 앞서 지적한 바이

44) '-더-' 통합의 어형에 대해 <형태론>은 특별한 명칭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화자가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또는 자신이 느낀 사실이란 것을 나타낸다(298)'고 설명함으로써, 이 역사 범범주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45) 남한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의 용어가 등장한다.

다. '-口'과 '-기'의 차이점을 전자는 '행동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강한 반면 후자는 '행동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정적(過程的)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낸다고 한 기술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후행 동사와의 통합 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직은 직관적 관찰에 머물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형용사에 대한 기술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사와의 차이점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는 1) 의미적 측면에서 동사는 동적인 과정을 나타냄에 반해 형용사는 정적인 성질, 표식을 나타낸다는 것, 2) 형태론적 측면에서 형용사는 ㄱ) 상(끝 피사동법)의 범주가 없다는 것, ㄴ) 명령식과 권유식의 제한이 있다는 것, ㄷ) 일부 종결토(46)와의 결합 제약이 있다는 것, ㄹ) 일부 접속토와의 결합 제약이 있다는 것, 그리고 3) 문장론적 측면에서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 규정어로 쓰이는 일이 더 많다는 것, 4) 단어 조성적 측면에서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 접두사적 단어 조성의 수법이 빈약하고 접미사적 단어 조성의 수법이 발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하의 종결형, 접속형, 규정형, 체언형에 대한 기술은 동사에 대한 기술을 줄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관형사는 성질 관형사와 분량 관형사로 나누고 있는데, 지시 관형사나 수 관형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분량 관형사는 다소 이채로운 것인데, 이는 대상의 수, 또는 양의 범위를 갈라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각, 근, 단, 모든, 매, 전(전체의), 제(여러), 온, 온갖.....”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 부사는 양상·정도의 부사, 시간·장소의 부사, 접속 부사, 양태 부사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다. 부사의 형태·문장론적 특징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없이, 달리, 같이’ 등과 같이 접미사 ‘-이’

46) 형용사와 결합 제약되는 종결토로 ‘-나이다, -노라, -노이다, -느니, -나이까’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느-’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는 문장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동사는 감탄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자의 감정, 화자의 의지 또는 욕구, 청자의 이야기에 대한 태도 등을 나타내는 세 갈래의 감동사를 구분하고 있다.

3) 『조선문화어문법』의 형태론은 1) 단어와 단어의 짜임, 2) 품사, 3) 조선말에서의 단어의 문법적 형태와 토, 4) 체언토, 5) 용언토, 6) 바꿈토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선어 문법 1』의 형태론에서 품사별로 장을 독립시켰던 것과는 다른 구성이다. 곧 토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장에서는 단어의 개념을 밝힌 뒤, 단어의 짜임, 곧 조어론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도 『조선어 문법 1』에서처럼 “단어가 짜이는 데 참여하는 가장 작은 뜻덩이”(p.172)를 형태부라고 부르고 있어, 형태소(morpheme)를 형태부라 부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어근은 말뿌리, 접두사는 앞붙이, 접미사는 뒤붙이라 명명하고 있다. 『조선어 문법 1』에서 접미사로 처리되었던 것들 중 상의 의미(사역 또는 피동)를 갖는 ‘-이-, -히-, -리-, -기-’,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 시칭의 의미(과거 또는 미래)를 나타내는 ‘-았-, -았었-, -겠-’, 체언형을 만드는 ‘-음, -기’ 등이 각기 상토, 존경토, 시간토, 바꿈토(용언의 체언형토)로 모두 바뀌어 있음은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피사동 접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어미들로 처리하는 남한의 문법 기술 태도와 거의 일치될 이루어진 것이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1) 단어들의 일반화된 뜻의 특성, 2) 단어들의 문법적 형태상의 특성, 3) 단어들의 문장론적 기능상의 특성, 4) 단어들의 이루어짐새의 특성 등을 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의 8품사 체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 등은 『조선어 문법 1』의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개별 품사의 기술 부분은 매우 소략하다. 그러나, 각 품사에 포함되

어 기술되었던 토들을 체계화하여 상술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3장 '조선말에서의 단어의 문법적 형태와 토'에서 문법적 형태인 토는 그것이 붙어 쓰이는 품사의 부류에 따라 체언토, 용언토, 바꿈토로 삼대분되고, 다시 체언토는 격토, 도움토, 복수토 등으로, 용언토는 맺음토, 이음토, 꾸밈토, 없음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 등으로, 바꿈토는 체언의 용언형토, 용언의 체언형토 등으로 나뉘고 있다. 또한 그것만으로 단어 형태를 끝맺어 매듭지을 수 있으며 문장 속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자리를 나타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리토(격토, 맺음토, 이음토, 없음토, 꾸밈토)와 끼움토(상토, 존경토, 시간토, 도움토)로 나뉜다. 용언토에 해당하는 것만을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자리토는 남한의 어말 어미에, 끼움토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⁴⁷⁾ 이는 『조선어 문법 1』에 비하면 한일층 진전된 문법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 상태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풀이토와 그 어떤 대상을 다른 단어와 연계지어주는 대상토를 나누고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맺음토, 이음토, 없음토, 꾸밈토 등이고, 후자에는 격토, 복수토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도움토는 대상형과도 함께 쓰이고 풀이형과도 함께 쓰인다 하고 그 예로 전자는 '칼-로-도', 후자는 '읽-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움토는 남한에서의 후치사 내지는 보조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체언에서 뿐만 아니라 용언의 접속형 '-고도'에서도 '-고'와 '-도'를 분석해 낸 것은 일관된 형태 분석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5, 6장은 각각 체언토, 용언토, 바꿈토를 다루고 있다. 체언토는 격토, 도움토, 복수토를 다루고 있다. 격토에서는 격토에 따라 8개의 격을 가진 격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주격(가, 께서), 대격(를), 속격(의), 여격(에게, 에, 께), 위격(에게서, 에서), 조격(로, 로서, 로써), 구격(와), 호격

47) 다만 피사동의 상토는 남한에서는 피사동의 접미사로 처리되고 있다.

(여, 야) 등이 그것들이다. 『조선어 문법 1』에서 함께 묶였던 ‘여-위격’이 독립된 반면에 절대격이 빠져 있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절대격은 격체계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⁴⁸⁾, 『조선어 문법 1』과 동일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움토는 의미에 따라 포함, 제한, 양보, 강조, 부정, 문장에서 내세움, 시작과 마지막의 관계 등과 같이 8개로 나뉘어 있다. 복수토로는 ‘-들’만이 인정되어 그 용법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⁴⁹⁾

용언토는 맺음토, 이음토, 꾸밈토, 없음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이들을 남한식 용어로 바꾸면 종결 어미, 연결 어미, 부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존대 선어말 어미, 시제 선어말 어미, 피사동 접사라 할 수 있다. 상토만 제외하면 남한의 기술과 거의 근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맺음토들은 말법(곧 문체법)과 말차림(곧 話階)에 따라 나뉘어 진술되고 있는데, 말법은 다시 ‘알림’(평서형), ‘물음’(의문형), ‘추김’(청유형), ‘시킴’(명령형)으로 사대분되고⁵¹⁾, 말차림은 ‘높임’, ‘같음’, ‘낮춤’으로 삼대분되어 있다. 말법은 『조선어 문법 1』과 동일한 반면에 말차림은 소략하게 되어 있다.

이음토는 벌림 관계와 매임 관계로 양대분한 다음⁵²⁾, 전자는 합치는 관계(고, 며, 면서, ㄹ뿐더러, 거니와, 려니와), 맞세우는 관계(나, 되, 지

48) “조선말의 격범주에서는 특별한 토가 붙지 않은 평형태(이른바 ‘절대격형’)가 존재하며 그런 형태를 이루어주는 언어적수단 평토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p.221)

49) 『조선어 문법 1』에는 ‘-들’에 관한 형태론적 성격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

50) 전술하였듯이 이들이 『조선어 문법 1』에서 모두 접미사로 처리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조선문화어문법』은 그만큼 남한의 문법 기술에 접근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51) 이는 각각 『조선어 문법 1』에서의 서술식, 의문식, 권유식, 명령식에 해당한다. 감탄법은 『조선어 문법 1』에서 서술식에 포함되어 있듯이 여기서는 ‘알림’에 포함되어 있다.

52) 벌림 관계는 대등 관계, 매임 관계는 종속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 건만, ㄴ데,.... 등), 가려내는 관계(거나, 거니, 든가,... 등)를 나타내는 것으로, 후자는 조건이나 가정, 양보 등의 관계(면, 거든, 아도, 기로 서니,등), 원인이나 근거 등의 관계(므로, 니, 느라니, ㄴ만큼, 기에,), 차례 관계(고서, 다가, 다, 자), 방식이나 수단의 관계(아, 아서, 아다, 아다가), 목적이나 의도 등의 관계(려, 자고, 느라고, 러), 부정의 관계(지)⁵³⁾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분하고 있다.

꾸밈토는 “어떤 단어가 용언의 앞에 쓰이면서 그 용언을 문법적으로 꾸며주는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p. 303)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형태로 ‘게, 도록, 듯, 듯이, 르수록’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없음토는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는, ㄴ, 던, 르’이 제시되어 있다.

존경토에 대한 기술은 주체 존대의 기능을 갖는 ‘시’를 다루고 있으며, 시간토에 대한 것은 시제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들을 다루고 있고, 상토에 대한 것은 능동태, 피동태, 사동태에 해당하는 제핍상, 입음상, 시킴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술이 『조선어 문법 1』을 줄여 놓은 듯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이들을 접미사가 아닌 끼움토로 다룸으로써 남한 문법에서의 선어말 어미에 근사하게 된 것은 남북한 문법 체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만하다. 역시 접미사로 처리되었던 체언의 용언형 ‘이’와 용언의 체언형 ‘口, 기’를 바꿈토로 기술함으로써 모두 어미 범주에 소속시킨 점이 돋보인다.

4) 『조선어학개론』에서는 형태론이 품사론, 문장론과 합해져서 문법론의 하위 분야로 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앞의 두 저서에서 문장론과 대등한 위치이면서 품사론을 그 하위 분야로 가지고 있었던

53) 『조선어 문법 1』에서는 ‘-기’, ‘-口’등과 함께 용언의 명사형으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형태론이 이 책에서는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함께 묶였던 품사와 토에 대한 기술이 각기 품사론과 형태론의 이름 아래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상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조선문화어문법』의 기술 체계를 그대로 옮겨 놓고 단지 축소시켜 놓은 데 불과한 듯이 보이므로, 여기서는 중복된 설명을 피하기로 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하나로 묶어 체언이라 하고,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로 묶어 용언이라 한 것이다. 그리하여 품사 체계를 종전의 8품사 체계에서 체언, 용언, 관형사, 부사, 감동사의 5품사 체계로 바꿔 놓고 있다.⁵⁴⁾ 그리고 토에 대한 기술에서 체언토, 용언토, 바꿈토로 삼대분하던 것을 여기서는 체언토와 용언토로 양대분하고 용언토에 자리토, 끼움토와 함께 바꿈토를 포함시켜 놓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5) 『조선어리론문법』은 넓은 의미의 형태론 분야에 소속되는 품사론과 형태론, 단어조성론을 별권의 책으로 나누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과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을 검토하기로 한다.⁵⁵⁾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은 서론과, 1) 품사론의 기초리론, 2) 체언적품사, 3) 용언적품사, 4) 수식어적품사, 5) 독립어적품사 등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품사론 서술에서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p. 6)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 사상 이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1장 품사론의 기초리론을 살펴보면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어휘-의미론적 특성, 형태론적 특성, 문장론적 특성 및 단어조성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어 문법 1』 이래 변함이 없다. 품사 체계는 『조선문화어문법』에서처럼 8품사 체계이지만, 품사 분류의 기준을 총체

54) 그런데 『문화어 형태론』(1980)에서는 상징 부사를 상징사로 독립시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상징사, 감동사의 9품사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55)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에 대해서는 이윤하(1991)의 서평을 참조 바란다.

적으로 고려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새롭다. 곧 형태변화체계를 갖춘 단어부류와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고, 전자를 다시 체언적 단어부류와 용언적 단어부류로, 후자를 수식어적 단어 부류와 독립어적 단어 부류로 나누고 있으며, 체언적 단어부류에는 명사·대명사·수사를, 용언적 단어부류에는 동사·형용사를, 수식어적 단어부류에는 관형사·부사를, 독립어적 단어부류에는 감동사를 소속시키고 있어, 형태·기능·의미를 모두 고려한 정연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식어적 품사나 독립어적 품사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으므로 체언적 품사와 용언적 품사 가운데 몇 특기할 만한 사항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체언적 품사 가운데 명사는 그 본질적 특성이 '대상성'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대상성을 특징짓는 문법 표지로는 일반적으로 성, 수, 격의 형태론적인 문법적 범주와 주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의 문장론적 기능이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어는 교착어로서 몽골어, 일본어, 터키어 등처럼 성 범주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⁵⁶⁾ 명사의 하위분류로는 1)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2) 활동체명사와 비활동체명사, 3)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 단위명사, 어근적 명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는 별도의 절을 통해 불완전 명사와 어근적 명사를 각기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불완전 명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의미론적 특성으로는 대상적 의미의 추상화를 지적하고, 2) 형태론적 특성으로는 ㄱ)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곧 접사법(곧 파생법)이나 합침법(곧 합성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 ㄴ) 격형태와 서술적 형태를 불완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3) 문장론적 특성으로는 반드시 규정어(곧 관형어) 뒤에서만 나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어근적 명사는 "자립적 단어로서의 문법적 표식을 잃고 점차 다른 품사로 넘어가거나 형태부화되어가는 과도적 단어부류들"(p.90)을 이르는 것으로서, 그 예로 '부지런, 고요, 부산, 능청, 야단, 범석', 그리고 '국제,

56) 수사는 수범주가 없으며 대명사는 격범주가 완전히 못함도 지적하고 있다.

원시, 가내' 등과 '용감하다, 대담하다' 등의 '용감', '대담' 등을 들고 있다. 이런 단어들은 격변화체계나 서술적 형태를 못가지거나 극히 일부만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문장론적 기능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불완전 명사와 다른 점은 어휘적 의미의 추상화를 겪지 않았으며, 격형태를 갖추고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용언적 품사 가운데 동사는 “행동성, 과정의 형태론적 표식과 진술성의 문장론적 표식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p.120) 데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어휘-문법적 부류로서 대상의 비과정적표식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p.148)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자립적 동사와 보조적 동사로 나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별 특기할 사항이 없지만, 보조적 동사에 대한 기술은 앞의 저서들에 비해 심도 깊게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보조적 동사에 대해서는 1) 자립적인 동사와의 결합에 의해서만 문장성분을 이룰 수 있는 ‘싶다, 말다’와 2) 동사의 일정한 형태가 화석화되어 일정한 격형태를 가진 명사와 함께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에) 즈음하여, (-로) 말미암아, (-을) 통하여, (-와) 더불어, (-를) 보고, (-에도) 불구하고, (-에) 대하여 등’⁵⁷⁾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오다, 있다, 나가다, 가다, 나다, 내다, 놓다’ 등은 자립적 동사의 보조적 사용이라 하여 보조동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점이다. 그리고 ‘싶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보지 않는 점도 흥미롭다.

『조선어어문법(형태론)』은 서론 외에 조선어형태론의 기초리론, 조선어형태조성의 수단인 토의 특성과 유형, 체언의 문법적범주들, 용언의 문법적범주들, 조선어에서의 문법적의미의 강조형, 조선어에서 바꿈

57) 그럼에도, 부사 항목의 기술에서 ‘(-과) 더불어, (-와) 아울러, (-로) 하여금’ 등을 의존 부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다.

토에 의한 체언형과 용언형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토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의 저서들과 비교하여, 특히 『조선문화어 문법』에 비하여 발전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특징적인 것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 상술은 피하기로 하겠다.

토의 유형을 격토, 복수토, 도움토, 맺음토, 이음토, 규정토, 상황토, 상토, 존경토, 시간토, 강조토, 바꿈토의 12개로 나누고 있는데다. 이들 유형은 용어의 바꿈을 제외하면 『조선어 문법 1』의 그것과 동일하지만⁵⁸⁾, '강조토'를 새롭게 설정한 것은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 강조토는 "일부 격토, 이음토, 상황토 등의 뒤에 붙어서 그 토들의 문법적 의미를 더 강조하는 토"로 정의되고, '-로써'의 '써', '-으로서'의 '서', '-에다가'의 '다가', '-게끔'의 '끔', '-다가'의 '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어 문법 1』 이래 대체적으로 도움토로 처리되어 온 것들인데, 접속형에서의 '-고서'와 '-어서'에서 나타나는 '서' 역시 분석해 내는 것은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격형 '-에서'에서의 '서'를 분석해 내는 데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문장론

1) 『조선어 문법 2 - 문장론』(1961)은 서론과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 문장, 구두법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구두법은 문장 부호에 관한 것인데, 문장론의 대상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상술을 피하기로 한다. 서론에서는 1) 문장론의 연구 대상, 2) 문장과 그 기본 표식들, 3) 문장론적 제 관계의 기본적 표현 수단, 4) 문장에서의 단어들의 연결, 5) 문장의 성분화와 문장성분, 6) 복합문, 7) 조선어 문장론에서 더욱 연구를 심화하여야 할 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북한의 문장론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대목이 많다. 그런데 단순문과 복합문을 나누는 기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늦도록 사람들은

58) 꾸밈토가 상황토로, 엮음토가 규정토로 바뀌어 있다.

회의를 했다.”에서 ‘늦도록’을 상황어(곧, 부사어)로 보고 단순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나는 어제 그 책을 읽었고 오늘 그 요지를 배웠다.”를 단순문 구조로 보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두 개의 술어 ‘읽었고’와 ‘배웠다’를 인정하면서도(p.31) 이를 단순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순문과 복합문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서론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은 뒷부분에서 상술되고 있으므로 뒷부분을 검토하기로 한다.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은 접속과 결합으로 나뉜다. 접속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제3의 어떤 단어에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p.17)인데, 이에겐 접속형 토에 의한 “크고 아름답게”, “노래며, 춤이며, 혼극 등”, 구격토에 의한 “팽이와 팽이채”, 여-위격토 ‘에’에 의한 “노래에 춤에 연극 등”, 도움토 ‘하고’에 의한 “붓하고 먹”, 도움토 ‘마는’에 의한 “저는 지금 갑니다마는 다시 오겠습니다.”, 접속부사에 의한 “읽고 또 썼다.”, 기타의 단어에 의한 “듣는 일방 계속 썼다.”, 동종성의 어조에 의한 “아낙네들이 지진다, 복는다, 굶는다, 아주 야단들이다.” 등이 포함된다. 접속은 그 유형에 따라 병렬적 접속과 종속적 접속(예: 지각하더라도 가겠다)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다시 합동적 접속(예: 높고 푸른), 대립적 접속(예: 낮으나 험하다), 분리적 접속(형이나 동생이 올 것이다)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했던 것이지만 이 단어들의 접속은 실상은 문장의 접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다. 결합이란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상관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론적 기능에 따라 연결됨”(p.18)을 이르는데, 이에겐 격토에 의한 “들판을 스쳐”, 규정형 토에 의한 “똑똑한 아들”, 접속형 토에 의한 “넓게 판”, 도움토에 의한 “작년보다 많다”, 보조적인 단어에 의한 “들은 대로 이야기하여라”, 등이 있다. 또한 형태 변화가 없는 결합도 있는데, “모든 사업”, “열심히 참가한다” 등이 그 예이다. 결합은 그 유형에 따라 서술적 결합(예: 바람이 날린다), 규정적 결합(예: 위대한 변혁, 세기적 숙망), 객체적 결합(예: 말뚝을 박다), 관련적 결합(예: 급격히

늘다, 해마다 늘다) 등으로 나뉜다.⁵⁹⁾

'문장'은 문장의 종류, 단순문, 복합문, 문장에서의 병렬적 단위들의 귀일 관계, 문장에서의 조응 관계, 전달법 등의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진술되고 있다. 중요한 몇 사항만을 검토해 본다.

우선 문장은 진술의 목적에 따라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의 네 갈래로 나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에 감동적 어조(또는 정서적 어조)가 동반되면 정서적 문장, 곧 감동문이 된다는 기술이다. 문장은 또 구조적 특성에 따라 1) 작구성문과 외구성문, 2) 전개문과 비전개문, 3) 단순문과 복합문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완전문과 불완전문의 구별이 있는데, 불완전문이란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으나 언어적 환경(문맥이나 처한 형편)에 의해서 그 생략된 성분을 알아 낼 수 있는 문장"(p.176)을 이르는 것이다. 작구성문은 주어와 술어가 갖추어진 문장이고 외구성문은 구조상 주어, 술어가 설정될 수 없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을 이른다. 외구성문에는 무주어 문장, 명령문, 단어 문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개문은 주성분(주어, 술어)뿐만 아니라 부성분(보어, 규정어, 상황어)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고 비전개문은 주성분만 있고 부성분은 없는 문장이다. 복합문은 단순문 구조를 가진 두 개 이상의 단위가 연결된 것인데, 이는 다시 결합 복합문과 접속 복합문으로 나뉜다. 여기서 결합 복합문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등의 내포절을 가진 복문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문장의 갈래에 대한 세부적 기술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만 지적하자면, 외구성문에서의 무주어 문장과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문을 엄밀히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맥 또는 장면 관계로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 문맥과 장면 관계에 의하여 주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문이

59) 이 결합은 각기 주어와 서술어 구성, 관형어와 체언 구성, 목적어와 서술어 구성, 부사어와 용언 구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면 무주어 문장은 이러한 장면 또는 문맥에 의존하지 않으며 문장 구조 자체가 원래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p.198)라는 진술은 돌보이는 진술이 아닐 수 없다.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술어, 규정어, 보어, 상황어 등이 제시되어 있다⁶⁰⁾. 주어에 대한 기술에서 이른바 이중주어문에 대한 처리 방식이 돋보인다. 가령 “아이가 눈을 예쁘다”에서의 주어 ‘아이가’에 대한 술어는 구 ‘눈이 예쁘다’이고, 그 구 안에서의 주어는 바로 ‘눈이’이고 그것에 대한 술어는 ‘예쁘다’라는 것이다.⁶¹⁾ 중복된 주어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대주어와 소주어 또는 장면의 주어와 주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자는 그러한 설명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이중주어문에 대한 이러한 처리 방식은⁶²⁾ 당시의 북한 문장론 연구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데 이르렀음을 확인케 해 준다.

보어란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성립되기 위하여 관여하게 되는 보충적인 성분인 대상을 나타내는 부성분”(p.140)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는 변형생성문법의 complement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당시 북한 국어학의 높은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어를 부성분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보어들은 직접 보어, 간접 보어, 대비의 보어, 전성의 보어, 상대의 보어, 조성의 보어, 국면의 보어, 인입(재료, 도구, 수단)의 보어, 재료의 보어, 자격의 보어 등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정밀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가령, “우리의 의지는 강철과 같다”에서 ‘강철과’를

60) 규정어는 관형어, 상황어는 부사어에 대응하는 것이다. 보어는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61) 이런 방식으로 삼중, 사중 주어문도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62) 1985년의 남한의 학교 문법(이른바 통일 문법)은 이중 주어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그것과 완벽히 일치를 한다. 다만 구를 절, 곧 서술절로 본 점만이 다를 뿐이다.

대비의 보어로 본 것은 이해되지만, “물소리보다 세차개”에서 ‘물소리보다’를 대비의 보어로 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상황어(곧 부사어)로 처리됨이 마땅할 것이다.

위에 든 5종의 문장 성분 이외에도 동종 성분과 관련하여 총괄어, 그리고 제시어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또한 문장 성분 밖에 오는 어들로 호칭어, 삽입어, 감동어를 들고 있다. 남한 문법에서는 제시어, 호칭어, 삽입어, 감동어 등을 묶어서 독립어라 하고 있다. 삽입어는 문접속 부사나 문수식 부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2) 『조선문화어문법』의 문장론은 1) 문장과 그 기본 표식, 2) 문장의 갈래, 3) 문장을 이루기 위한 단어들의 어울림, 4) 문장의 전일적인 짜임과 문장 성분, 5) 외구성문, 6) 복합문, 7) 옮김법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어 문법 2』와 대비해 보면 슬어를 우리 말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

문장은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 알림문장, 물음문장, 추김문장, 시킴문장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조선어 문법 2』의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에 각기 해당된다. 또한 이들에 감동적 어조가 없으면 느낌문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조선어 문법 2』의 감동문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장은 또 구조적 특성에 따라 1) 두구성문과 외구성문, 2) 단순문과 확대문, 3) 완전문과 불완전문, 4)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뉜다. 전개문과 비전개문의 구별이 빠지고 단순문과 확대문이 들어와 있다. 여기서 단순문과 확대문의 구별은 생소하다. 확대문은 “두 개 이상의 자립적 단어로 확대된 성분을 가진 문장”(p. 359)으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서 자립적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제시된 용례 “백두산의 끝없이 숭엄한 모습이 한눈에 바라보인다.”를 보면, 결합 복합문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확대문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합문은 겹침복합문과 이음복합문, 얹힘복합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결국 결합복합문은 문장성분의 확대로 다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상에 따른 문장의 갈래가 추가되어 있는데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에 해당되는 제힘상문장, 입음상문장, 시킴상문장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는 사동문에 반대되는 주동문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문장성분은 크게 맞물린성분과 외판성분으로 나뉘는데, 맞물린성분은 다시 세움말, 풀이말, 보탬말, 엮음말, 꾸밈말로, 외판성분은 부름말, 끼움말, 느낌말, 이음말, 보임말로 나뉜다. 이들에서의 전자는 각기 『조선어 문법 2』의 주어, 술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에, 후자는 호칭어, 삽입어, 감동어, 접속어, 제시어에 해당한다. 각 문장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선어 문법 2』를 간추려 놓은 느낌을 준다.⁶³⁾ 다만, 보탬말(보어)에 들임말(인용어)을 둔 것, 문장 성분 밖에 오는 것을 외판 성분(우리의 ‘독립어’에 해당)이라 한 것, 여기에 보임말(제시어)을 넣고 이음말(접속어)을 삽입어에서 분리시켜 낸 것 등이 달라진 점이다.

3) 『조선어학개론』의 문장론은 문장에 대한 일반적지식, 단어결합, 문장성분, 문장의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의 갈래로는 말하는 목적에 따라 알림문, 물음문, 추김문, 시킴문, 느낌문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선문화어문법』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느낌문에 대해서 다른 문장들의 분류와는 질서를 달리한 문장의 갈래라고 했던 데 반해서 여기서는 나머지 문장들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리고 문장 구조의 의미-구조상 특성에 따라서는 단순문과 확대문,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에서 확대문은 확대성분을 가진 것이라 명시되고 3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조선문화어문법』에서 보인 불분명성을 해소하고 있다. 단일문에는 보통단일문, 단어문장, 명명문, 중단문을 두었는데, 중단문의 제시가 새로

63) 이른바 이중 주어문의 처리도 『조선어 문법 2』에서처럼 서술절을 설정하여 설정하고 있다.

운 것이다. 복합문은 겹침복합문, 이음복합문, 엮임복합문으로 나뉘고 있다. 복합문에 대한 기술에서 복합문을 이루는 단위와 확대성분이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자는 다음에 오는 풀이의 단위 전체와 관계를 맺는 반면에 후자는 어느 한 문장 성분에만 관계되는 문장론적 단위라는 것이다. 또한 문장성분의 갈래에서도 맞물린성분, 외편성분, 겹친성분·묶음말, 확대성분으로 나누고, 맞물린성분으로는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로, 외편성분으로는 부름말, 끼움말, 느낌말, 이음말, 보임말 등을 두고 있는 등, 『조선문화어문법』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체적으로 『조선어학개론』에서는 문장론에 관한 기술이 매우 소략하여 문장론에 관한 기술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현대언어학의 추세를 거스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은 총론과 1) 문장론의 기초리론, 2) 단어들의 결합관계, 3) 문장성분, 4) 문장류형, 5) 복합문, 6) 문장율김법 등의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이 이론문법의 이름을 달고 있어 도처에 이론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규범성을 내세운다든지 주체 사상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앞의 저술보다도 더 심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가령 문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진술성’에 주목하면서 “진술성의 표현은 민족적특성을 가진다.”(p. 39), “참으로 진술성표현의 물질적수단의 풍부성과 다양성은 우리 말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믿음직한 징표이다.”(p. 39)라는 언급에서 주체 사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처에서 ‘민족적특성’, ‘우리 말의 우수성’, ‘조선어의 고유한 특성’과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언어 구조가 평등하게 동일하다는 구조주의적 사고와 상반되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앞선 저술들보다는 이론적으로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어들의 결합 관계의 기본 유형은 우선 단순단어결합관계, 전개(확대)단어결합관계, 고정된 구조의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나뉘는데, 이 모든 경우에 결합(예: 모든 민족, 독립을 이룩한), 접속(예: 나라와 민족),

병립(예: 자주, 자립, 자위의), 연접(예: 우리 모두, 학생 셋이)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문장 성분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성분과 부성분에 대한 비판을 한 다음,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문장 성분의 갈래를 나누고 있는데, 이 갈래를 다음의 도표(p.146)로 정리하고 있다.

성격 기능	맞물린성분	외판성분	단독성분
기초성분	《진술어》		《진술어》
주도성분	《진술어》, 주어, 술어, 직접보어		《진술어》
의존성분	간접보어, 상황어, 규정어	끼움말 이음말 부름말 느낌말	

위 도표에서 기존 논의에서 볼 수 없는 ‘진술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 단어 또는 하나의 주도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의 단어 또는 주도어를 이르는 말이다. 보어를 직접 보어와 간접 보어로 나눔으로써 앞선 저술에서 광범위했던 보어를 주도성분과 의존성분으로 나누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문장 성분에 대한 기술에서 흥미로운 것은 문장 성분 간의 우위성을 따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주어에 대해 술어가 우위에 있다는 논의 대목이 특히 흥미로운데, 그 이유의 하나로 “술어는 문장의 기본표식인 진술성을 물질적으로 형상화하는 요소들이 집중된 단위이며 문장의 진술화를 끝맺아주는 핵심적단위”(p. 147)임을 제시하고 있다.

문장의 유형은 이전보다 많은 기준에 의해 나누고 있지만, 하위 구분

에서는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 큰 차이점을 몇 개 지적한다면, 우선 진술의 목적에 따른 문장 유형을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으로 삼대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문장 유형으로 설정되어 왔던 권유문은 시킴문의 하위 개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알림문에 귀속되었던 약속문도 시킴문의 하위 개념으로 자리매김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진술의 성격에 따라 느낌문을 두고 있는 것은 기존의 논의들과 일치할 이룬다. 다만, 긍정문과 부정문을 진술의 성격에 따른 유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진술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유형으로 옮김문과 '특수문장'을 제시하고, 전자는 다시 바로옮김문(직접인용문), 풀어옮김문(간접인용문), 이중옮김문(이중인용문) 등으로, 후자는 목적문과 삽입문으로 나누고 있는 것도 새롭다. 여기서 목적문은 선어말어미 '더'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문장 성분의 구비 정도에 따라 단순문과 확대문, 문장구조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단일문과 복합문을 나눈 것은 『조선문화어문법』과 다를 게 없다.

IV. 결론

이상에서 북한 국어학의 시대적 전개과정과 맞물려 있는 『조선어 문법 1』, 『조선어 문법 2』, 『조선문화어문법』, 『조선어학개론』,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국어학 체계를 개관해 보았다. 이러한 개관 작업을 통해서 북한의 국어학 체계는 『조선어 문법 1,2』에서 그 골격이 제시된 이래 용어의 변개나 그 하위 범주의 설정 변경 등과 같은 세세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큰 변모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북한 국어학의 정체성(停滯性)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조선문화어문법』에서 더욱

정연한 체계를 갖추게 된 점은 발전적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으면 했지 더 나아진 면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체 상태는 주체 사상이 강조되면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곧 주체 사상에 따라 우리 말의 주체성, 고유성, 우수성 등을 무리하게 강조하려 함으로써 구조주의적 언어학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순수 국어학의 담보 상태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순수언어학 측면에서는 해방 이전부터 발전되어온 우리 나라 국어학의 전통을 상당 부분 이어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 언어학, 변형생성문법이론 등 해방이후 세계적으로 발전되어온 서구 이론이 북한의 국어학 체계 수립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남한의 국어학 체계와 차별성을 갖게 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의 폐쇄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2차, 3차 연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의 국어학 체계의 현실적 적용의 모습, 남북한 국어학 체계의 비교, 통일 시대의 바람직한 국어학 체계 등과 같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성호, 『조선어 입말체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강은국, 『조선어 문형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3.
- 고동혁, 『조선어 문형 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4.
- 고신숙, 『조선어 리론문법(품사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고신숙 외,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사회과학출판사, 1986.
- 고영근,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1), 주시경학보 2, 1988.
- 고영근,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2), 주시경학보 3, 1989.
-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89.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조선어 문법 1 (어음론·형태론)』, 1960.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조선어 문법 2 (문장론)』, 1963.
-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1992.
- 김동식,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서평, 주시경학보 6, 1990.
- 김동찬,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86.
- 김두봉, 『김두 조선말본』, 상해 : 새글집, 1922.
- 김민수,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출판부, 1985.
- 김민수, 『조선문화어문법』 서평, 주시경학보 3, 1989.
- 김병제, 『조선어 방언학 개요』,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김병제, 『조선어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김병제, 해방후 15년 동안 조선 언어학의 발전, 조선어문 4, 1964.
- 김수경,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문제에 관하여, 조선어문(상)·(하), 1956.
- 김영환, 『문화어 문장론』, 종합대학출판사, 1983.
- 김영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김용구, 『조선어 리론문법(문장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김용구, 『조선어문법』,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조선문화어문법규범』, 1976.
- 김하수(1989), 『북한의 국어연구(김민수 1989)』 서평, 주시경학보 5, 181-2.
- 남광우, 북한의 한자교육 연구,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1989.
- 남기심(1988), 『조선어학개론』(최정후, 1983) 서평, 주시경학보 2, P.177.
- 렴종률, 『문화어 형태론』, 종합대학출판사, 1980.
- 류렬, 『조선말력사』,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리근영, 『조선어 리론문법(형태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문영호, 『계산기 언어학 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규범집 해설』,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신창순, 북한 문화어 문법의 검토,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6.
- 유동석, 『조선어 문법 1』(형태론) 서평, 주시경학보 4, 1989.
- 이광정,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서평, 주시경학보 6, 1990.
- 이병근, 남북한의 사전편찬 비교, 북한연구 1993 가을호, 1993.
- 이승옥, 북한의 국어연구와 언어정책, 동아연구 제14집, 동아연구소(서강대), 1988.
- 이승옥, 북한의 문법규범화(형태론 분야)의 변천과정과 그 특성, 동아연구 제28집, 동아연구소(서강대), 1994.
- 이윤하,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 서평, 주시경학보 7, 1991.
-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1986.
- 이지량,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 서평, 주시경학보 8, 1991.
- 이필영, 김두봉의 국어 연구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10, 주시경연구소, 1992.
-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녹진, 1989.

- 정순기, 『조선어의 보조적 단어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 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1988.
- 최명옥, 『조선어 문법 1』 -어음론 서평, 주시경학보 4, 1989.
- 최명옥, 북한의 어음 연구/방언론, 어학연구(서울대) 28-3, 1992.
- 최정후, 『조선어학개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Marx, K. H. &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1845-6, (번역: 『독일 이데올로기』, 1957, 조선노동당출판사).
- Newmeyer, F., *The Politics of the Linguis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 Vološinov, V.N.,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translated by L. Matejka & I.R. Titunik), Harvard Univ. Press, 1986.